좋은 위기의식, 나쁜 위기의식

(시편 71:1~24)

9.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10.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11.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 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12.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13.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14.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좋은 위기의식, 나쁜 위기의식>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좋은 위기의식, 나쁜 위기의식'

콜레스테롤에는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중성지방과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은 동맥경화와 당뇨 비만 등의 병들과 연관된 나쁜 콜레스테롤이고,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합니다. 한편 위기의식에도 좋은 위기의식이 있고 나쁜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위기의식을 기업운영에 적극적으로 적용한 사람으로 봅니다. 2001년에 삼성전자가 괄목할 실적을 올리던 무렵이었습니다. 당시에 주어진 성과에 안주하려는 분위기가 삼성그룹 내에 팽배해지자 회장이 직접 나서서 일갈하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위기감이 회사 전체에 어느 정도 퍼져 있느냐, 그 위기감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와 있느냐, 얼마나 심각하게 와 있느냐"라는 말을 했습니다. 회사나 기업은 위기감과 함께 하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성과로 인해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대 중반에 LG전자가 초콜릿 폰으로 대중의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에도 이건희 씨는 "조그만 것이라도 한 번 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라는 말로 삼성 전체가 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2005년에는 반도체에서만 10조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축배를 들어야 할 때에 또 나서서 "일본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일본의 저력을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며 일본을 경계할 것을 주문하면서 위기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심지어 2010년 금융위기가 닥쳤음에도 분기이익이 10조원을 넘는 큰 실적이 나오자 오히려 살

벌할 정도로 경계했습니다. “10년 후에 삼성이 세계 1위를 하는 제품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 기업가에게는 만족이 없다. 기업가는 항상 비관적이다. 기업과 위기는 숙명적 동반자이며 기업가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이 오늘날의 삼성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조와 변화와 발전과 성장은 이건희 회장이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위기의식을 동력삼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변화의 원조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성은 위기의식에서 비롯되는 것도 아니며 도전과 응전의 공식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창조는 이루어졌습니다. 나일강의 범람과 이집트 문명의 탄생과 발전은 자연의 도전에 대한 인간의 응전의 결과가 아니라, 한 꺼풀 더 크게 본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의한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민에게 위기의식은 무엇이며 어떤 위기의식을 가져야 할까요?
선민이 가져야 하는 위기의식은 바로 유전죄에 대한 깨달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선민은 항상 하나님과 세상과 ‘나’라는 삼각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원죄의 체질에 의해서 정복당한 상태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보다 먼저 육체로 접하는 세상에 대해 반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교이자 신앙의 대상일 뿐 현실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직 세상을 현실로 느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몸으로 만나는 세상보다 우선적 현실로서 느끼지 못하는 것이 바로 유전죄적 체질입니다.
유전죄적 체질상 세상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중단되기 일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으로 앙망하는 것이 중단되는 사실에 대한 위기의식이 신앙의 위기의식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건희 회장 식으로 삶에 대해 갖는 위기의식은 모두 불신앙의 증거일 뿐입니다. 한 마디로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같은 나쁜 위기의식입니다. 김정은이 미사일을 쏜다고 해서 위기의식을 갖는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쁜 위기의식입니다. 인생을 망치는 것이고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전죄적인 체질로 인해서 하나님을 세상 상황보다 우선적인 현실로 깨닫지 못함에 대해 위기의식을 갖는 것은 신앙인이 가져야 될 좋은 위기의식입니다. 원죄적 체질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육체로 만나는 삶의 상황을 우선적 현실로 느낄 수밖에 없는 위기의식이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와 변화와 성과가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의식을 가질 때에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형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삶의 형편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전적인 불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시의 저자는 예레미야나 다윗으로 추측되기도 하지만 역사적 배경과 더불어 확정할 수가 없

습니다. 다만 저자가 나이 많아 늙었고 쇠약해졌으며 굉장히 큰 어려움 겪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이런 가운데 시인은 자신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일생동안 겪었던 숱한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이 늘 베푸셨던 은총을 기억하고 찬양합니다. 그럼으로써 동일한 은총이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서도 계속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삼각관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삼각관계 안에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반영한 표현입니다. 삼각관계에는 하나님과 내가 있고 세상의 부분에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시인은 이 원수들로부터 하나님께로 도망가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대적들에게 끌려가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위와 반석과 요새라고 합니다.

세상 형편에 마음이 끌려가는 것은 이방인이나 선민에게 모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변수가 아예 삶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삼각관계를 이루지 못한 채 세상과 자신의 양자관계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도 종교나 신이 있지만 그것들은 세상과의 관계를 형통하도록 동원되는 수단일 뿐 삼각관계의 한 축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선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삼각관계의 한 축으로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다시 정리해봅니다. 이방인이나 선민이나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마음은 몸이 속한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에 이방인은 자신이 만든 신을 동원하지만 선민들은 끌려가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도망가는 것을 임무이자 과제로 삼습니다. 참 선민은 세상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부분이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가르쳐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5~6절을 보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9절에 보면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라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 여호와를 의지하고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택하셨다는데 시인은 왜 이렇게 원수들로 인한 위기의식에 압도된 것일까요? 이게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3절의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라는 노래대로 주

께서 그러하신 분이라면 왜 이렇게 악인과 흉악한 자의 장중에 사로잡힐 것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세상에 누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붙잡힌 나를 궁극적인 위기에 몰아넣을 수가 있다고 이토록 커다란 위기의식에 사로잡힌다는 말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선민들은 삶의 위기의식을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부터 붙잡으셨다는데, 피조물에 불과한 악인들이 나타났다고 해서 위기의식이 생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논리적으로 자문해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이 돈이 없다고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이 맞습니까? 위기상황이 주어질 수는 있어도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은 불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 없이 사셨습니다. 풍랑만난 배에서 주무신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집이 없어지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것을 인생의 큰 위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벌벌 떠는 위기상황의 삶을 사셨음에도 스스로 평강하게 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억울함이나 위기의식을 느끼는 대신에 열린 하늘을 바라보면서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이 났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도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위기의식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18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 쉬지 말고 기도하라 /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였습니다. 위기의식과는 도대체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도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였고 4절에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위기처럼 보이는 상황이 주어질 수 있지만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았다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왜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부터 생각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본문 9절을 보면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라고 하였고 18절에서도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라고 하였습니다. 모태로부터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이제 늙어 백발이 되니 나를 버리실까 이런 기도를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구절은 위기의식의 이유를 알게 해줍니다.

12절에서는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하지 마소서'라고 하였고, 18절의 뒷부분에서는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멀리하신 적도 없고 버리신 적도 없습니다.

위기의식은 마음으로 늙었거나 병약하거나 돈이 없거나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약하다고 느낄 때에, 당면한 현실의 상황을 극복할 수 없을 때에 갖게 됩니다. 나를 보고 세상을 봄으로서

위기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리 약해졌다고 해도 어머니 뱃속에서 갓 태어난 아기보다는 나이든 노인이 강할 것입니다.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택하셨음에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 인간이라면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마음이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민은 세상 문제를 극복하려는 대신에 하나님께로 도망가는 자들입니다. 반대로 이방인은 자기 방식대로 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와 신을 동원합니다. 이러한 선민이 인지상정으로 세상으로 마음이 끌려가는 마음을 방치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위기의식이 느껴지는 시간을 줄여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8~31절을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에 그들의 불평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잡힌 이들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피곤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신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불평이 나약한 자신을 통해 느끼는 감정을 하나님께 투사하는 것에 불과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피곤함을 느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하지 마소서'라고 하고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앙망함이 중단되어 틈이 생긴 것입니다. 이 틈으로 삼각관계 안에 들어온 원수와 악인들에게 마음이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사로잡힌 상태에서 도망가기를 바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과 같은 위기의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삼각관계 안에서 세상을 젖혀두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해야 하는데 그것이 끊어지자 자신의 육체적 약함이 투사되어 세상에 대한 위기의식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삼각관계에 속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고 세상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배우자나 가족이 있고 사업이나 인간관계나 나라의 문제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은의 미사일 발사나 중국의 시진핑이나 일본의 아베와의 국제관계까지도 세상에 속한 일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심이 우선적인 현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종교와 신앙이라는 굴레에 가둬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여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배우자와의 관계보다도 더 우선적인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앙

망하는 것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몸이 있는 이 세상에서 위기의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풍랑을 만난 배에 탈 수는 있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더 우선적인 현실로 인정한다면 풍랑은 위기가 될 수 없습니다. 현실은 사실에 마음이 더해진 것입니다. 내 마음이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마음을 먼저 보내어 하나님이 우선적인 현실이 되면, 나는 풍랑 만난 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이 됩니다.

돈이 없는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그 상황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선적인 현실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 되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돈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십니다. 주님께서는 풍랑 만난 배 위에서 하나님의 장중에 계셨기에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책임지셨습니다.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우선적인 현실로 여기자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에 대한 앙망이 중지된 상태에서 세상에 휩쓸리고서야 다시금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찾는 내용이 많이 등장합니다. 마치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몸에 많이 쌓인 것과 같습니다. 그나마 이처럼 세상에 대한 위기의식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피신하기 위해서는 성전의 번제단과 지성소를 늘 떠올리며 살아야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들보다 유리한 지점에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성전의 완성이신 주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시선은 곧바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은 단순히 그 이름을 부름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사십일 금식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일억 번 부를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돈을 앙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앙망’은 곧 깊은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이 주어질 때에 내 마음이 만족하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앙망하는 것은 곧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일억 번을 부를지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 돈을 기대하며 부른다면 결국 돈을 앙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 있지 않는 동안에는 100% 자동으로 세상을 붙잡게 되므로 24시간 십자가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 십자가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앙망하기 위한 방법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의 지성소에 법궤가 들어 있듯이 마음에는 하나님의 이름만이 들어와 계셔야 함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들어와 있음을 발견했다면 곧바로 번제단을 통해 죽음으로서 하나님을 앙망하려 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 세상을 붙잡으려는 마음이 죽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로써 하나님을 진정으로 앙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앙망할 때에 혹시 위기는 찾아올지 모르

지만 위기의식은 사라집니다. 위기처럼 보이는 상황들은 오히려 삶의 궁극적 목적지로 달려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반대로 세상에 대한 위기의식에 사로잡히는 것은 지름길을 버리고 먼 길로 돌아가거나 길을 완전히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위기의식을 갖는다면 형통할 수 없습니다. 형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올라타야만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백수 천수를 앞서 보시고 준비하신 지름길을 주실 것입니다. 이 지름길을 위기로 느끼고 피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길에서 이탈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그러면 몸이 속한 땅의 현실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평강이 유지될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자유자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세상 삶에서의 위기의식은 나쁜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러나 내가 한 시라도 하나님에 대한 앙망을 그칠까를 염려하고 위기의식을 갖는 것은 좋은 콜레스테롤이며 이를 위해 십자가 생활화가 절실한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좋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서 모든 위기의 지름길들이 줄줄이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형통의 형통으로만 이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